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국제학석사학위논문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녀 성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2016년 8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 전공

애 방 림

**A Study of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in a
Transforming Society:
A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A Thesis presented

By

Ai Banglin

to

The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In partial fulfillment of the requirements

for a Master's Degree in Korean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Seoul, Korea

August 2016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녀 성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지도교수 은기수

이 논문을 한국학 석사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16년 5월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애방림

애방림의 석사학위논문을 인준함

2016년 8월

위 원 장 박태균

부 위 원 장 한영혜

위 원 은기수



A Study of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in a Transforming
Society:

-A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Professor Eun Ki Soo

Submitting a master's thesis of Korean Studies

May 2016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n Studies Major

Ai Banglin

Confirming the master's thesis written by Ai Banglin

August 201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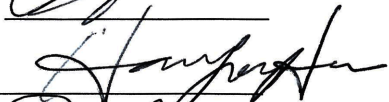
Committee Chair

Park, Tae-Gyun



Committee Vice-Chair

Han, Young-Hae



Committee Member

Eun, Ki-Soo



Copy Right ©2016 by Ai Banglin
All Rights Reserved

〈국문초록〉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의 자녀 성선택에 관한 연구:

-한국과 일본을 중심으로-

에 방림

서울대학교 국제대학원

국제학과 한국학전공

동아시아 사회는 다양한 성선택을 보이고 있다. 강한 아들 선호부터 무성 선호 및 딸 선호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 사회의 자녀 성선택은 다양성이 특징이다. 이 연구는 2012 년 한국종합사회조사 및 2010 일본종합사회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최근에 한국 및 일본 사회에서 자녀 성선택이 어떤 모습으로 존재하고 있고, 한 사회 내에서 자녀 성선택이 어떤 차별성을 보이고 있는지 분석하고 있다. 양국 데이터를 사용하여 양적 분석을 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한국 및 일본 사회에서 자녀 성선택에 관한 태도가 사회적인 수준에서는 아들 선호보다 딸 선호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과거 강한 아들 선호 국가로 알려진 한국에서는 딸 선호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기존의 연구결과와 같이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에서도 딸 선호 사회로 나타났다.

둘째 자녀 성선호는 한 사회 내에서 성별에 따라 차이가 크다. 한국사회 및 일본사회에서 남자는 여자에 비해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한다. 일본 남자가 여자에 비해 아들을 선호하는 비율은 331%로 4 배이고 한국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 아들을 선호하는 비율이 64%, 즉 1.64 배이다. 성별에 따라 자녀 성선호에 관한 태도는 일본이 한국보다 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셋째 소득의 정도가 자녀 성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수준에서의 차이와는 달리 한국도 일본도 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넷째 개인의 수준에서 한국은 교육수준은 중학교, 나이는 60 대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한다. 일본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도 나타난다.

주요어: 한국, 일본. 자녀 성선호, 아들 선호, 딸 선호

학번: 2014-24257

목 차

| | |
|----------------------------------|----|
| 제 1 장 서론 ----- | 1 |
| 제 1 절 연구 배경 ----- | 1 |
| 제 2 절 연구 목적 ----- | 2 |
| 제 3 절 기존 연구 ----- | 3 |
| 제 2 장 자료와 방법 ----- | 13 |
| 제 1 절 자료와 방법 ----- | 13 |
| 제 2 절 변수 설명 ----- | 16 |
| 제 3 절 연구가설 ----- | 20 |
| 제 4 절 연구대상자의 특징 ----- | 22 |
| 제 3 장 결과분석 ----- | 26 |
| 제 1 절 한국 및 일본 자녀 성선택의 변화추세 ----- | 26 |
| 제 2 절 기술적 분석 ----- | 29 |
| 제 3 절 회귀분석 결과논의 ----- | 32 |
| 제 4 장 결론 ----- | 39 |
| 제 1 절 요약 및 결론 ----- | 39 |
| 제 2 절 토론 및 한계 ----- | 42 |
| 참고문헌 ----- | 45 |
| Abstract ----- | 53 |

표목차

| | |
|---|----|
| <표 1>15-44 세 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의 변화(1985-2003) | 6 |
| <표 2>한국출생 성비: 1970-2005 년----- | 8 |
| <표 3>연구대상자의 특징 ----- | 22 |
| <표 4>한국-연도별로 자녀 성선택의 변화추세 ----- | 26 |
| <표 5>일본-연도별로 자녀 성선택의 변화추세 ----- | 27 |
| <표 6>기술적 분석 ----- | 29 |
| <표 7>한국- 회귀분석 결과 ----- | 32 |
| <표 8>일본- 회귀분석 결과 ----- | 33 |

제 1 장 서론

제 1 절 연구배경

자녀 성선호(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라는 것은 자녀의 특정한 성을 선호하는 태도다. 자녀성선호는 유형에 따르면은 남아선호, 여아선호, 동등선호, 무선호 네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소위 동등선호란 것이 최소한 한 명의 아들과 딸을 원하는 성선호이며 무선호는 부모가 자식의 성에 무관심한 경우에 나타나는 성선호이다(이성용, 1995). 남아선호는 뜻대로 아들을 원하는 선호며 딸선호는 딸을 원하는 선호이다. 자녀 성선호가 뚜렷한 사회가 있고, 또 한편은 자녀의 특정한 성에 대하여 뚜렷하지 않은 사회도 있다. (은기수, 2013).

동아시아사회에서 나라별로 아들 선호 사회는 중국, 인도, 베트남이 있으며 딸 선호 사회는 태국, 일본이 있으며 무선호 사회는 대만, 싱가포르 있다. 또한 급속히 변화하는 사회속에는 강한 아들선호부터 점차 아들선호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인 한국도 있다. (Chung, Woojin and Monica Das Gupta, 2007).

사회마다 자녀 성선호가 다양하게 존재하면서도 각 사회 내에서는 성과 나이, 거주지역 혹은 세대에 따라 자녀 성선호의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은기수, 2013; 小島宏, 2003; 坂井博通, 1992). 급격한 사회변동을 경험한 한국에서 자녀 성선택에 대한 태도는 과연 과거와 동일한가? 다르다면 어떻게 다를 것인가? 개인의 차원에서 자녀 성선택은 기존연구의 결과와 일치하는가? 등의 질문으로부터 문제를 고찰하고자 한다.

제 2 절 연구목적

자녀 성선택은 결코 사소한 주제가 아니다. 가족구조, 사회변동, 부양, 복지국가의 가족 모형, 더 나아가 가족 이외의 가치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특정한 자녀성선택이 부각한 나라는 성비를 왜곡하여 이로 인한 심각한 사회문제도 일으킬 수 있다. 이에 따라 자녀 성선택이 갖는 의미와 중요성이 결코 작지 않다. 우리는 이 자녀성선택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나중에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동아시아 사회에 존재하는 자녀 성선택의 현재와 미래를 계속 주의 깊게 관찰할 필요가 있다. 이는 단순히 개인적인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 한 사회에서 가족의 안녕과 성과 세대 간 사회적 통합과도 연결되는 거시적 수준의 가치변동과 밀접히 연관된 문제이기 때문이다 (은기수, 2013).

이 연구는 한국보다 오래전부터 일찍 자녀성선택에 관한 연구를 실행해 온 일본과 비교 하여 한국과 일본 사회에 자녀 성선택의 차별점 및 공통점을

밝혀보려고 한다. 2006 년 한국, 일본, 대만, 중국의 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종합사회조사의 결과를 통해 같은 아시아 국가 사회에서 자녀성선호에 관한 태도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조사에 따르면 자녀 성선호연구는 더이상 단순히 남아선호를 집중하는 것이 아니다. 한국은 강한 남아선호 경향과 강한 여아선호 경향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 반면, 일본은 남아선호보다 여아선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한-일 양국의 비슷한 시기에 자녀 성선호가 얼마나 다양하게 존재하는지를 밝히는 것이 이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이다. 엄밀한 비교통계분석을 통하여 양국사회에서 개인적인 차원에서 아들을 선호하는 사람중에 남자가 많은지 여자가 많은지, 소득이 높은 사람이 많은지, 소득이 낮은 사람이 많은지를 분석하는 것이 본 논문의 이차적인 목적이다.

제 3 절 기존연구 검토

한국의 남아선호사상이 어떻게 시작되었는가에 대한 기원연구는 선행연구에 따라서 여러 측면에서 분석해야 한다. 사상적인 측면에서 유교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 한국사회에서 남성중심사상이 그리 강하지 않았다. 신라 시대에는 여왕이 존재했고, 고려 시대에는 상속제도에서 남녀를 크게

차별하지 않았다. 고려 시대부터 조선전기까지 하더라도 부계사회라고 할 수 없으며 여성의 지위도 높았다.

조선 시대 중후기에 들어가면서 유교사상은 한국사회를 지배하기 시작했다. 유교사상은 광범위로 전파되어 유교사상을 사회규범으로 삼으면서 여자의 사회지위도 낮아진다.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편이 부인보다 높다’(夫高於妻), ‘남편은 하늘이고 부인은 땅’(夫者妻之天也), ‘부창부수’(夫唱婦隨)란 말이 종종 있다. 이런 남존여비사상 그 외에 조선 중후기부터 조상숭배와 가문계승은 남성중심으로 되었다. 남성 호주(戶主)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은 입법하였다. 이에 따라 남성을 물론이고 여성들도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게 되었다. 조선 시대에는 장남이 집안 대소일을 다 책임져야 한다는 전통이 있다. (문옥표, 박병호, 김광익, 은기수, 이충구, 2004). 한국의 자녀 성서호는 가문계승과 노후보장 등 요소하고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 (이성용, 2003) 전통적인 유학 영향을 받는 한국은 아들이 특별히 장남 같은 경우에 대를 이어야 한다. 동아시아사회에는 중국은 옛날부터 ‘아들을 키우면 노후준비한다’(養兒防老)란 말이 있다. 가부장 가족제도에서 아들이 부모의 노후를 봉양하는 행위는 사회규범이다. 즉 자녀 특히 아들은 부모가 자신에게서 노후봉양을 원하든 않든 상관없이 부모를 모시고 봉양해야 한다. (문옥표, 박병호, 김광익, 은기수, 이충구, 2004).

그 외에 한국의 전통사상인 복사상, 즉 오복사상은 수부귀다남고종명(壽富貴多男, 考終命)이다. 즉 아들을 많이 낳는 것을 행복의 원천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상적 측면 그 외에 생물학적인 측면에서 진화론자를 비롯한 자연주의자들은 남성이 여성보다 생리적으로 우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남아선호사상은 인구구조에서 성별의 불균형을 초래하여 남성인구가 초과하여 남성독신자의 증가, 이에 인하여 성범죄증가 등의 사회학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진교훈, 1997).

압축적 근대화를 겪은 한국사회에서는 가치관이 급속도로 변하고 있다 (장경섭, 1997) . 가족 가치관 및 자녀 성선택에 대한 태도도 빠른 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전통적인”가치관에서 보다 유연하고 “근대적인”가치관으로 변하고 있다. 이미 밝혀졌듯이 한국은 가치관변동이 매우 빨라 세계 여러나라에서 세대간 가치관의 차이가 가장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Inglehart, 1997). “근대적인”가치관으로 변하고 있으나 여전히 보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은기수, 2009) 가치관이 전통적인 가치관에서 비전통적인 가치관으로 변하더라도 모든 분야의 가족 가치관이 비슷한 속도로 변화하는 것이 절대 아니다. 즉, 빠르게 변화하는 가치관도 있는 반면은 느리게 변화하는 가치관도 있다. 가치관은 세대, 지역, 및 문화권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광범위한 영역의 사람들이 공통으로 지니고 있으면서도 세대

간, 남녀 간, 또는 국가 간에 서로 다른 면면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 사회의 가치관과 그 변화 과정을 정확히 아는 것은 그 사회 구성원의 공통적인 생각들과 공통적이지 않은 생각의 차이들을 밝혀내어, 이를 토대로 공감적 소통을 통한 사회 통합과 행복한 삶을 이루어 가는 데 도움이 된다(나은영 차유리 2010).

강한 남아선호로 인식되는 한국사회는 지금 남아선호가 점점 약해지고 있다(Christophe, 2009; Jawon Choi, Jisoo Hwang, 2015). 예를 들어 옛날에는 자녀성선호에 관한 가치관은 “아들 한 명 꼭 있어야 한다”라는 입장이 주류였다면, 지금은 “아들 없어도 상관없다”라는 주장도 많아지고 있다.

<표 1>15-44 세 유배우부인의 아들 필요성의 변화(1985-2003)¹

(단위: %, 명)

| | 꼭 있어야 한다. | 있는 것이 좋음 | 없어도 무관함 | 모르겠음 | 계(수) |
|------|-----------|----------|---------|------|-----------|
| 1985 | 47.7 | 18.7 | 32.5 | 1.1 | 100(5095) |
| 1991 | 40.5 | 30.7 | 28 | 0.8 | 100(7448) |
| 1994 | 26.3 | 34.3 | 38.9 | 0.5 | 100(5175) |
| 1997 | 24.8 | 35 | 29.4 | 0.8 | 100(5409) |
| 2000 | 16.2 | 43.2 | 39.5 | 1.1 | 100(6350) |
| 2003 | 14.1 | 41.8 | 43.3 | 0.8 | 100(6559) |

¹ 자료: 『2003 년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실시한 조사결과에 따라 결혼한 여성중에 ‘아들 한 명 꼭 있어야 한다’라는 태도를 보이는 비율은 1985 년은 47.7%, 1991 년은 40.5%, 1994 년은 26.3%. 1985 년부터 1991 년까지 계속 낮아지며 ‘없어도 상관없다’의 비율은 1985 년의 32.5%에서 2003 년이 43.3%로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짧은 20 여 년에 자녀 성선택에 대한 태도는 아주 빠른 변하고 있고 향후 남아선호가 악화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한국의 남아선호가 인구학자들의 시선을 이끌 수 있는 이유는 기존연구에 따라 한국에 있는 남아선호가 성비외곡 및 출산율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다. 강한 남아선호사호는 성비를 왜곡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아이를 선호하는 한국인에게 첫째가 아들이면 첫째가 아들이 아닌 경우보다 둘째를 낳을 비율이 아주 낮다. 이로 인해서 강한 남아선호는 결국 저출산율로 전환하게 되었다는 발견이 있다. (ULLA LARSEN, WOOJIN CHUNG, MONICA DAS GUPTA, 2007).

그리고 수백 년 동안 남아선호사상이 전해온 한국사회는 남아선호가 감소하면서 성비의 불균형으로부터 균형을 잡기까지 겨우 30 년밖에 안 된다. 출생성비의 특징에 대해 정리해 보면 아래 표에서 볼 수 있듯이 성비의 불균형은 1970 년대 높아지기 시작하여 1990 년에는 116.5 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0 년대 중후반부터 점차 내려가며 2005 년 이후

거의 정상수준과 근접하게 되었다(통계청, 2006). 짧은 시간에는 성비균형을 이루어지는 현상은 인구학자들이 많은 관심을 가진다.

<표 2>한국출생 성비: 1970-2005 년

(단위:%)

| 연도 | 출생성비 | 연도 | 출생성비 ² |
|------|-------|------|-------------------|
| 1970 | 109.5 | 1996 | 111.6 |
| 1975 | 112.4 | 1999 | 109.6 |
| 1980 | 104.3 | 2002 | 110 |
| 1985 | 109.5 | 2003 | 108.7 |
| 1990 | 116.7 | 2005 | 107.7 |

이런 변화가 근대화, 산업화 및 경제성장이 일반적인 가치관의 변동으로 인하여 한국의 가족가치가 약화되고 한국의 아들 선호도 약화하였다는 최근 연구가 있었다(Chung and Das Gupta, 2007). 그러나 정우진과 다스 굽타는 거시적인 관점과 미시적 관점을 결합하여 여성의 교육과 같이 소위 근대화 요인이라고 불릴 수 있는 요인이 한국에서 아들 선호가 약화하는데 기여하고 있음을 실증적으로 밝히고 있는 점에서 한국사회의 자녀 성선호 연구에 크게 기여를 했는데 이 연구에서 사용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실시한 출산력 조사 자료는 기임기 여성을 대상으로 하고 남성은 조사대상에서 배제되어 있으며 가임기 이전과 가임기 이후의 여성 또한 조사에서 배제되어 있다.

² 여아 100 명당 남아수

자료: [인구동태건수 및 동태율 추이], 통계청, 2006

이러한 자료는 전국적으로 대표성 있는 표본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에서 자녀 성선택에 관한 태도를 일반화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존의 연구를 검토해 본 결과, 특히 가치나 태도를 중심으로 한 자녀 성선택에 관한 연구는 자료상의 문제가 큰 것으로 보인다. 출산력 조사 자료에 의존한 연구는 주로 가임기 여자를 대상으로 한 자료를 분석하기 때문에 한 사회 내에 성별에 따른 자녀 성선택이 명확히 설명되지 않거나 분석이 불가능하다(은기수 2013).

한국의 자녀 성선택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하여 이웃 나라 일본을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한국과 일본은 지리적으로 가까이에 위치해 있다 보니 많은 비슷한 점들이 있는 반면, 상이한 부분도 많이 존재하고 있다. 일본인들의 자녀성선택을 깊이 이해하려면 일본의 역사와 사회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일본사회를 우선 시기별로 이해하고자 한다. 일본은 역사적으로 자녀에 대한 관심이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들을 선호하는 풍조가 있었다. 에도시대까지 아이의 출생 전부터 성별에 대한 점복(占卜)을 치는 관례가 있었으며 심지어 일본 각지에서 이런 점복을 통해서 자녀 성별을 아들로 바꾸는 전통도 있었다. 그러나 점복으로 출산 전에 자녀 성별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원치 않은 성별을 출산 한 경우, 출산 후에 자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경우도 있었다. 에도시대에 밝힌 사료를 분석함으로써 자식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행위는 자녀 성선호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川口 2002, 津谷 2002). 이런 선성호는 유교사상과 관련성이 있는지 좀 더 검증이 필요하다. 다만 한국에 비해서 일본은 유교사상에 영향을 많이 받지 못했다 (Ochiai Emiko, 2011).

유교사상은 5 세기 혹은 6 세기에 일본으로 들어 왔으나 그것의 영향력은 제한적이었다. 한국의 양반 계급 및 일본의 무사 계급은 서로 다 유교의 영향을 받았지만 상이한 방식으로 전개된다. 그리고 유교에 대한 실천 및 이해도 한국과 일본 두 나라에서 서로 다르다고 할 수 있다. 유교를 생활규범으로 삼는 한국 양반계급과 달리 역사에서 메이지유신 전에 일본에서 무사(武士) 계급의 소수 무사 (武士) 만 유학을 믿고 존송해왔다. (Sekiyama Kaku, 2013) 이에 따라서 사회 곳곳에서 유교 사상이 들어가 있는 한국사회에 비하여 일본사회에는 유교는 보편적이지 않으며 정신적 기반이 강하지 않았다. 그러나 일본이 유교의 영향에서 완전히 제외되었다고 할 수 없다. 유학 가족계승 사상에 따라 지금 일본에도 장남이면 가문을 계승하며 노부모를 의무로 봉양해야 하는 사례도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 다만 이런 사상이 한국보다 상당히 약하고 사회의 주류 사상인지 아직 검증되지 않았다.

일본사회에서 나타난 자녀 성선호현상을 밝히려면 유교 사상 그 외에 다른 면에서도 접근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기존의 인구자료에 따르면

일본에는 자녀 성선택은 세계대전 20-30 년대에는 남아선택이 나타났다. 1955 년 이후에 일본의 성비는 105-108 정상치 구간에 있다. 1980 년부터 근대화가 이루어진 일본에는 사회경제적 변화 하면서 사람들이 자녀 가치에 대한 인식도 많이 바꾸었다. 자식가치는 경제적가치가 많이 떨어지는 반면에 심리적인 가치가 많이 상승한다. (Arnold et al.1975; Buratao1979).

1980 년에 들어가서 일본에는 여아선택이 나타났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일본에는 결혼한 여성은 아이의 성별 구성에 대하여 관심이 증가하면서 딸 선택의 경향도 동시에 증가한다(坂井 1992). 그리고 성별 역할에 따라 남자 및 여자는 가족분업이 다르다. 보통 남자는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밖에 나가서 일을 하고 여자는 가사노동, 육아 및 가족구성원 간의 친밀한 관계를 유지한다는 성별역할에 대한 기대가 있다. (Arnold and Kuo1986).

앞에 서술하였듯이 일본의 자녀 성선택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고 일본의 인구학, 사회학 영역에서 새로운 연구 영역이 아니다. 그러나 일본은 중국, 한국과 비교했을 때 자녀 성선택에 관한 연구는 그리 많지 않다. 학자들의 주의력을 이끌어 내지 못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 있다. 1. 일본에는 인공유산으로 자녀 성별을 바꾸는 행위가 많이 없다. 한국과는 달리 자녀성선택은 일본의 성비에서 직접 전환하지 못하고 성비는 크게 왜곡하지 않는다(小島宏 2002). 2. 일본 또한 동아시아의 유학사상으로 인해 중국,

한국과 비슷한 자녀성선호의 특징을 지닌다는 가설이 있다. 3. 일본은 오랫동안 경제발전을 해왔기 때문에 아들 선호가 약하다는 주장이 있어 자녀성선호에 관한 연구는 많이 주목을 받지 못했다. (Kana Fuse, 2013)

그러나 일본의 자녀성선호에 대한 연구가 그 가치를 전혀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최근 몇십 년간에 일본의 출산율이 매우 낮은 상황에서는 첫 번째 자녀의 성별은 자신이 선호하는 성별과 맞는 여부가 아주 중요한 문제다.

이러한 중요한 문제를 좀 더 관찰하기 위해 기존연구를 바탕으로 이 논문은 새로운 자료를 이용하여 자녀 성선호에 대한 연구에 기여하고자 한다.

제 2 장 자료 와 연구방법

제 1 절 자료와 연구방법

<자료>

본 논문에서는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2012 와 일본의 General Social Survery JGSS 2010 를 사용하여 양적 연구를 실시한다.

한국종합사회조사(KGSS)는 성균관대학교 서베이리서치센터가 매년 실시하는 전국표본조사로서, 한국인의 주요 가치 및 태도, 속성, 행동 방식, 일상생활 양태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한다. KGSS 의 표본은 “전국의 가구 거주 만 18 세 이상 성인 남녀”를 모집단으로 해서 다단계 지역 집락표본 추출법(multi-stage area probability sampling)으로 추출되며, 현지조사(fielding)는 전국의 표본 가구들을 200 여명 이상의 조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일대일 심층 면접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일본의 JGSS 오사카산업대학교가 매년 및 2 년 간격으로 실시하는 조사로서 일본 전국의 만 20 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층화 이단 무작위 추출법으로 이루어졌다. 이 자료를 사용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 번째 한국의 경우에는 자녀 성선택에 관한 기존연구에서 사용한 자료들이 대부분이 가임기 여성 및 가임기 기혼여성만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다. 대부분 기존 연구는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서 3 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전국 출산력 및 가족보건복지실태조사는 15 세부터 49 세까지의 기혼 여성만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다(은기수, 2013). 가임기 여성은 한국의 전체인구를 대표할 수 없기에 자료상으로 보면 국한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일본의 경우에는 기존연구에서 주로 많이 쓰는 자료는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JNFS)이다. JNFS 는 일본 국립사회복지-인구문제연구소(國立社會保障-人口問題研究所)에서 5 년마다 실시하고 있는 결혼, 출산, 아이 양육 등 문제를 포함한 조사다. 이 조사는 미혼과 기혼을 두 집단으로 나누어 조사한 자료로서 일본 전 국민은 자녀 성선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할 때 국한성이 있다.

두 번째 KGSS2012 및 JGSS2010 는 이미 공개된 양국사회종합조사 자료 중에 상대적으로 최근 자료로서 이를 분석함으로써 한국과 일본 사회의 최근 모습을 살펴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변화하는 한국, 일본 양국 사회 속에서 자녀 성선택의 태도는 어떤 변화를 일어났는지에 대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 외에 이런 변화를 통하여 미래 한국하고 일본의 자녀 성선택 의연구에 대하여 유의미한 가치가 될 것이다.

<연구방법>

본 연구의 첫째 방법으로 접근방법을 사용한다. 연구 내용을 좀 더 과학적으로 다루기 위하여 연구목적과 적합되는 여러 선행 연구들의 결과를 검토하여 주어진 자료에 대한 서술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자료를 기반으로 주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유추에 목표를 두어야 한다.

둘째 통계분석방법으로서 본 연구에서 양적 자료분석방법을 활용한다. 연구방법은 “자녀 성선택”을 종속변수로, 다양한 속성들을 독립변수 및 통제변수로 설정한다.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TATA14 을 이용했다. 본 논문은 연구목적 및 연구가설에 따라 기존연구를 토대로 자녀 성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를 선택하여 연구대상자를 분석할 것이다.

이 후 기술적 분석을 관찰하여 기술적 분석에 나온 결과에 따라 로지스틱 회귀 모델을 사용해서 결과를 다시 검증하고자 한다.

한국 KGSS 는 다항 로지스틱 회귀 모델(Multinomial Logistic Regression)을 사용해서 자녀 성선택과 이에 관련성이 있는 여러 변수를 측정할 것이다. 한국 KGSS 는 일반로지스틱 회귀(Binary Logistic Regression) 모델을 사용해서 자녀성선택과 이에 관련성이 있는 여러 변수를 측정할 것이다.

제 2 절 변수설명

<종속변수>

본 논문은 자녀 성선택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측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측정하는 종속변수는 자녀 성선택이다.

한국종합사회조사 KGSS 설문지에 25 문항에 따라서 “만일 귀하가 자녀를 한 명만 갖는다면, 아들이 좋습니까, 딸이 좋습니까?”에서 응답자의 자녀성선택태도에 관한 대답은 “1. 아들 2. 딸 3. 상관없음” 세 가지로 나누어지고 있다.

한편은 일본사회종합조사 JGSS 설문지 60 문항에 따라서 “If you were to have only one child, would you prefer a boy or girl”을 선택한다. 응답자에 대한 대답은 “1. Boy 2.girl” 두가지 선택으로 두가지로 분류되어 있다.³⁴

<독립변수>

³ 이 문항이 매우 단순한 태도 문항이기 때문에 이 문항을 이용해 자녀 성선택을 측정할때 측정타당도(measurement validity)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항은 일본의 일본종합사회조사에서 2000년부터지금까지 채택되고 있고, 한국의 한국종합사회조사에서도 2004년 이후 2년 혹은 4년 간격으로 채택, 조사되고 있다.

⁴ 기존 연구에 따라 “특정한 자녀성별에 대한 숫자”를 비교해서 자녀성선택을 측정하는 연구도 있고 “꼭 아들 한 명 있어야 된다”를 종속변수로 자녀성선택을 측정하는 연구도 있다.

성별: 동아시아 사회에서 남자 및 여자 성별별로 자녀성선호에 대한 태도가 다르다는 기존연구가 많다. 2006 년 동아시아가족조사 자료에 따라서 한국남자는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하며 여성은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하다(은기수, 2013). 따라서 본 논문에서 성별을 독립변수를 선정하여 남자와 여자의 자녀 성선호에 대한 태도가 과연 다른 것인가를 밝히고자 한다. 한국과 일본 응답자의 성별은 남자 및 여자 두 가지로 분류되어 있다.

소득: 자녀 성선호에 관한 기존 연구를 보면 직종 변수는 아주 중요한 변수이다. 직종 변수를 독립변수로 선정한 논문은 (Tin-chi Lin, 2009; Hilke Brokmann 2001; Woojin Chung, Monica Das Gupta2007) 가 있다. 직종에 따라서 소득도 다르다. 그러나 소득을 독립변수로 선정한 논문은 많지 않다. 사람들이 소득 수준에 따라 사는 방식이 다르며 자녀가치에 대한 판단도 다를 수 있다. 심지어 자녀 필요 여부에 대한 태도도 다를 것이다. 이러한 이유에서 소득을 이 논문의 독립변수를 선택한다.

<통제변수>

나이: 나이는 자녀 성선호와 성 역할에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생각한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나이는 종속변수를 측정하는 데 중요한 통제변수이다.

예를 들어 미국의 경우 성 역할에 대하여 나이가 많을수록 전통적인 태도가 보인다(Smith and Kluegel 1986). 또한 나이는 전통성에 관련성이 있다는 결과는 서독일, 프랑스, 영국, 미국, 일본, 이탈리아, 네덜란드 일곱개 나라의 비교연구에서도 검증을 받았다 (Kamano 1999). 한국에서 나이에 따라서 가치관도 다양하게 나와 있는 기존연구가 있다. 이에 따라 나이를 독립변수로 선택한다. 그 외에 압축적 근대화를 겪은 한국사회(장경섭, 2001)가 급속히 변화하는 과정중에는 사람들의 나이에 따라 가치관도 다를 수 있다(나은영, 차유리, 2010)⁵.

교육수준: 대만에서 교육수준이 높은 집단이 교육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아들 선호가 약하게 나타났다(lin, 2009). 교육수준이 자녀 성선호와 관련성이 있다는 발견은 여러 기존연구에서 이미 검증을 받았다. 한국보건연구원에서 1997 년 및 2003 년도 실시했던 전국출산력 및 가족보건실태조사결과에 따라 배우자가 있는 부인의 아들 선호는 부인의 교육수준과 밀접한 관련성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아들 선호의 경향이 낮아진다. 일본의 경우 후생노동성인구문제연구소(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에서 1993 년에 발행한

⁵ 본 논문에서 측정하는 샘플에 따라서 나이의 최소치는 20 세이다. KGSS 에 따라 나이변수의 최대치는 88 세이다. JGSS 에 따라 나이의 최대치는 89 세이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여성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오히려 아들 선호가 강할 것이라는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왔다(坂井博通, 1989).

결혼상태: 여성의 운명은 여성 자신보다는 자신의 남성 가족 성원 즉 결혼 전에는 아버지, 결혼 중에는 남편, 남편의 사별 후에 아들에 의해 결정된다(Cain, 1979 Class, patriarchy, and women's work) 따라서 혼인상태에 따라 여성의 행위 및 선택이 다를 수 있다.

도시규모: 큰 도시에서 거주하면 자녀 성선호가 상대적으로 낮다(Chung Woojin, Das Gupta, 2007). 중국에는 농촌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이 좀 더 보수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어 농촌지역 사람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에 비해 아들 선호가 강하다는 기존연구가 많다. 일본의 경우에는 후생노동성인구문제연구소(厚生省人口問題研究所)가 1993 년에 발행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거주지역에 따라서 인구 집중지역 및 인구 집중하지 않은 지역 모두 아들 보다 딸을 더 선호하며 인구 집중지역은 인구가 비교적 집중되지 않은 지역보다 딸 선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坂井博通, 1989).

종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딸 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다는 기존연구가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2000 년 일본사회종합조사에 나온 결과에 따라 종교를 믿는 여성은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하는 연구도 있다(小島宏, 2003). 이에 따라 종교는 본 연구에서 통제변수를 사용한다.

제 3 절 연구 가설

기존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이 특정한 자녀 성을 원하는 경우에는 경제적인 원인도 있고 사회적-문화적 원인도 있다.

미국종합사회조사에서 남자는 아들을 더 원하며 여자는 딸을 더 원한다는 연구가 있다. 그 이유는 남자는 딸보다 자신과 항상 운동을 함께 할 수 있는 아들을 원하며 여자는 아들보다 자신과 의지할 수 있는 딸을 원한다는 연구가 있다. 과연 한국 사회 및 일본 사회에도 성별에 따라 이런 차별성이 있는가?

경제적인 이유는 노후부양, 아이 교육비, 양육비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소득수준에 따라 사람들이 자녀성선호에 대하여 다른 태도를 보이는가’라는 질문을 중심으로 개인의 경제적 능력과 자녀 성선호간의 관계를 측정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 주로 두 가지 연구가설을 제시했다.

가설 1: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과 일본의 자녀 성선호에 대한 태도가 매우 다양하다. 성별에 따라 자녀성선호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태도가 보인다. 한국과 일본 모두 남자는 아들을 더 선호하고, 여자는 아들보다 딸을 더 선호한다.

가설 2: 개인적인 차원에서 소득에 따라 자녀 성선호에 대하여 서로 상이한 태도를 보인다. 일본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아들선호가 강해진다. 한국은 소득이 높아질수록 딸선호가 강해진다.

제 4 절 연구대상자의 특징

<표 3>

| 변수 | 한국 | | 일본 | |
|-----------------------|-------------|------------|-------------|------------|
| | N (%) | Mean/ SD | N (%) | Mean/SD |
| | 1068 | | 2134 | |
| 나이⁶ | | 3.48/1.42 | | 3.54/1.37 |
| 20 대 | 181(13.37) | | 208(9.75) | |
| 30 대 | 188(13.88) | | 357(16.73) | |
| 40 대 | 262(19.35) | | 401(18.79) | |
| 50 대 | 244(18.02) | | 400(18.74) | |
| 60 대+ | 479(35.38) | | 768(35.99) | |
| 성별 | | 1.55/0.49 | | 1.54/0.49 |
| 남자 | 598(45.78) | | 977(45.78) | |
| 여자 | 756(55.83) | | 1157(54.22) | |
| 학력⁷ | | 2.27/1.197 | | 2.46/1.009 |
| 중학교 졸업 이하 | 474 (35.01) | | 321(15.04) | |
| 고등학교 졸업 | 392 (28.95) | | 992(46.49) | |
| 단기대학, 전문대학 | 127 (9.38) | | 321(15.04) | |
| 대학교 이상 | 361 (26.66) | | 500(23.43) | |
| 월평균 가구소득 | | 4.64/2.38 | | |
| 100 만원 미만 | 163(12.04) | | | |
| 100-199 만원 | 221(16.32) | | | |
| 200-299 만원 | 176(13) | | | |
| 300-399 만원 | 87(6.43) | | | |
| 400-499 만원 | 38(2.81) | | | |
| 500 만원 이상 | 65(4.8) | | | |

⁶ 나이 분류<한국><일본> 20 살-39 살=20/30 대. 40 살-59 살=40/50 대. 60 살이상=60/70 대를 분류함.

⁷ 학력 분류<한국> 중학교 졸업 이하=무학. 서당한학, 초등(국민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졸업=고등학교. 단기대학전문=전문대학교(2 년제). 대학교이상=대학교(4 년제), 대학원(석사과정), 대학원(박사과정)을 분류함

<일본> 중학교 졸업 이하=구제 고등 소학교이하 또는 신제 중학교 중학교 졸업이하. 고등학교 졸업=구제 사범학교 이하 또는 신제 고등학교 졸업이하. 단기대학, 전문=구제 고등학교 이하 또는 신제 단기 대학, 전문대. 대학교 이상=구제 대학교 이상 또는 신제 대학교 이상

| | | | |
|----------------|-------------|------------|-------------|
| 미적용 | 604(44.61) | | |
| 연간 가구소득 | | | 2.91/1.73 |
| 0-100 만엔 | | 618(28.96) | |
| 100-250 만엔 | | 461(21.6) | |
| 250-350 만엔 | | 247(11.57) | |
| 350-650 만엔 | | 376(17.62) | |
| 650 만엔이상 | | 149(6.98) | |
| 무응답 | | 283(13.26) | |
| 혼인상태 | | 1.56/0.77 | 1.41/0.73 |
| 기혼,동거 | 832 (61.45) | | 1564(73.29) |
| 이혼,사별,별거 | 278 (20.53) | | 250(11.72) |
| 미혼 | 244 (18.02) | | 320(15) |
| 거주지역 | | 1.82/0.83 | 2.07/0.66 |
| 큰 도시및 큰도시 주변 | 618(45.64) | | 401(18.79) |
| 작은 도시 | 359(26.51) | | 1182(55.39) |
| 농촌 | 377(27.74) | | 551(25.82) |
| 한국-종교 | | 2.99/1.72 | |
| 불교 | 406(29.99) | | |
| 개신교 | 278(20.53) | | |
| 천주교 | 123(9.08) | | |
| 기타 | 15(1.11) | | |
| 없음 | 532(39.29) | | |
| 일본-종교 | | | 64.4/33.96 |
| 불교 | | 577(27.04) | |
| 기타 | | 155(7.26) | |
| 없음 | | 1402(65.7) | |

본연구는 한국 만 20 세 이상 총 1068 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일본은 만 20 세 이상 총 2134 명을 연구대상으로 한다.

성별로 보면 한국에서 남자 비율은 45.58%이고 여자 비율은 55.83%이다. 일본의 남자 비율은 45.78%이고 여자 비율은 54.22%이다. 양국의 여자 비율은 남자보다 대략 10% 이상 높은 것으로 보인다.

소득을 보면 한국은 100-199 만원 소득집단의 비율은 16.32%로 제일 높으며 일본은 0-100 만엔의 연간가구소득의 비율은 총인구의 28.96%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높다. 한국은 500 만원이상 소득집단 및 일본은 650 만엔이상 소득집단은 각각 4.8% 및 6.98%이다.

나이를 보면 한국과 일본은 60 대 이외에 각 연령층의 분포비율은 균형있게 나타났다. 60 대이상 집단은 한국은 35.38%이고 일본 35.99%이다.

학력을 보면 한국은 중학교 및 중학교 졸업 이하 하는 사람이 35.01%이며 일본은 중학교 및 중학교 졸업 이하 하는 사람이 15.04%이다. 연구 대상 중에 한국에서 학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이 일본보다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고등학교 졸업자는 한국은 28.95%이며 일본은 46.49% 이다. 고등학교 졸업자의 비율이 학력집단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

혼인상태를 보면 기혼, 동거 집단의 비율은 한국은 61.45%, 일본은 73.29%로 혼인상태집단에서 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연구대상자 중에 한국에서 기혼, 동거하는 사람들의 비율이 일본보다 낮으나 이혼, 사별, 별거하는 비율은 20.53%로 일본의 11.72%보다 높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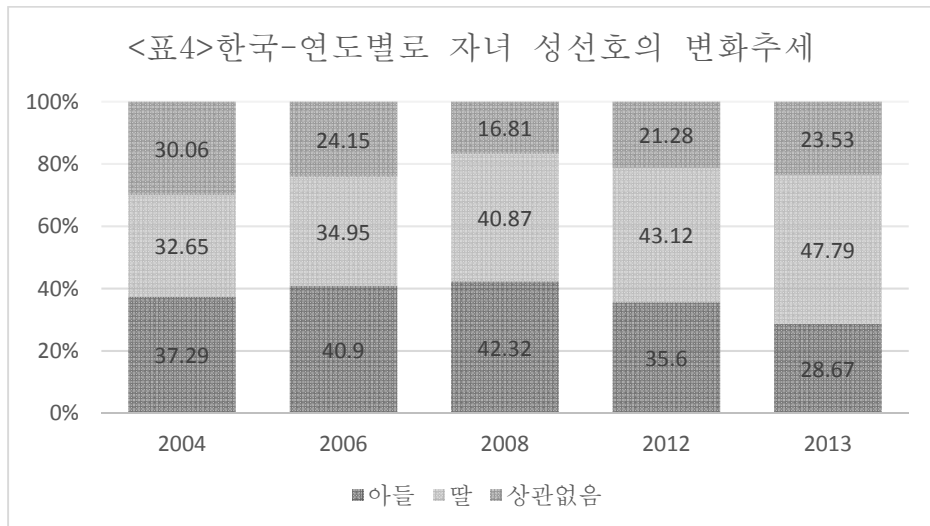
거주지역별을 보면 한국의 연구대상자들중에는 45.64%는 큰 도시 및 큰 도시 주변에 거주하는 반면 일본의 연구대상중에는 55.39%가 작은 도시에 거주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교별에 따라서 한국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은 29.99%이고 그 다음에 개신교는 20.53%이고 천주교는 9.08%이다. 일본은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27.04%이지만 대부분 사람들이(65.7%) 종교가 없다.

연구 대상자의 특징을 분석함으로써 아래와 같은 결과를 알 수 있다. 한국과 일본 연구대상자의 특징은 나이, 성별, 혼인상태가 아주 비슷하다고 나타난다. 한편 학력, 종교, 거주지역 분포를 보면 두 나라에 차이가 있다. 연구대상자를 통계적으로 분석하고 서로 비교 가능하다고 본다.

제 3 장 결과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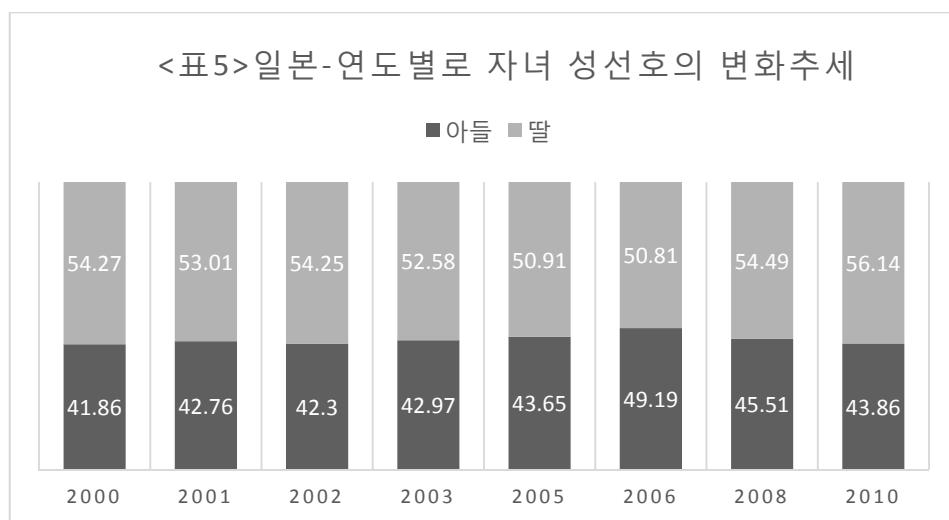
제 1 절 한국 및 일본 사회의 자녀 성선희에 변화 추세



본 논문의 분석대상인 한국과 일본 사회의 자녀 성선희의 전반적인 추세는 표 4 를 통해 파악할 수 있다. KGSS2004, KGSS2006, KGSS2008, KGSS2012, KGSS2013⁸ 를 사용해서 한국은 연도별로 자녀 성선희의 변화추세를 측정한다. 전체적으로 보면 2004 년부터 2013 년까지 딸선희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시기를 나누어 살펴보면 한국은 2004 년부터

⁸ 일본의 일본종합사회조사에서 2000 년부터 지금까지 매해마다 자녀성선희에 대한 측정을 하며 한국의 한국종합조사에서는 20004 년 이후 2 년 혹은 4 년 간격으로 자녀성선희에 대한 문을 채택, 조사되고 있다. 이에 따라 KGSS 2005, KGSS 2007, KGSS2009, KGSS2010, KGSS2011 에서는 자녀성선희란 문항은 설문지에 안 들어가기에 KGSS2004, KGSS2006, KGSS2008, KGSS2012, KGSS2013 을 선택해서 한국의 자녀성선희에 대한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다.

2008 년까지 아들선호 및 딸선호가 동시에 증가하는 추세로 보인다. 2013 년은 2008 년에 비하여 아들 선호가 급속히 하락하는 반면은 딸 선호는 계속 증가한다. 특히 2012 년에 딸 선호는 처음으로 아들 선호 비율을 추월하였다. 2013 년 한국은 <표 4>에서 알 수 있듯이 아들 선호가 차지하는 비율이 28.67%에 불과한 반면 딸 선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47.79%으로 상당히 높다. 한국이 90 년대 강한 아들 선호국가에서 점점 아들 선호가 약해지면서 현재 딸 선호국가로 변하였다는 결론을 선불리 내릴 수 없지만 딸을 선호하는 비율이 점점 더 증가하는 추세를 살펴 보았을 때 미래 한국은 딸 선호국가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JGSS2000-JGSS2003, JGSS2005, JGSS2006, JGSS2008, JGSS2010⁹를사용해서 일본의 연도별 자녀성선호의 변화추세를 측정한다. 급속히 변화하는 한국사회와 달리 한국보다 먼저 근대화를 경험한 일본은 1990년대 경제불황 이후 사람들의 가치관은 조금씩 변화하였다. 기존연구에 따르면 일본은 1920-1930년대 강한 아들선호가 생겼는데 1980년대부터 처음에 여아선호의 생겼다.

표<5>에서 볼 수 있듯이 일본사회에서 아들선호보다 딸선호가 더 강하게 나타났다. 그중에 2006년 딸선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49.19%이며 아들선호가 차지하는 비율은 50.81%이다. 이로인해 gender balance preference 사회 경향도 나타났다.

⁹ 일본의 일본종합사회조사 JGSS 에서 2000년부터 자녀성선호에 대한 태도를 채택되고 있다. JGSS 는 매년 혹은 2년 간격으로 조사되고 있으므로 JGSS2000-2003, JGSS2004, JGSS2005, JGSS2006, JGSS2008, JGSS2010 를 선택한다.

제 2 절 기술적 분석

<표 6>

| | 한국 | | | | 일본 | | |
|------------------------|-------|-------|-------|-----|-------|-------|------|
| | 아들 | 딸 | 상관없음 | 총 | 아들 | 딸 | 총 |
| 성별 | | | | | | | |
| 남성 | 219 | 228 | 151 | 598 | 608 | 369 | 977 |
| | 36.62 | 38.13 | 25.25 | 100 | 62.23 | 37.77 | 100 |
| 여성 | 269 | 350 | 137 | 756 | 328 | 829 | 1157 |
| | 35.58 | 46.3 | 18.12 | 100 | 28.35 | 71.65 | 100 |
| 소득 | | | | | | | |
| 한국(월) 일본(연간) | | | | | | | |
| 100 만원 이하/100 만엔 이하 | 63 | 62 | 38 | 163 | 212 | 406 | 618 |
| | 38.65 | 38.04 | 23.31 | 100 | 34.3 | 65.7 | 100 |
| 100-199 만원/100-250 만엔 | 64 | 104 | 53 | 221 | 191 | 270 | 461 |
| | 28.96 | 47.06 | 23.98 | 100 | 41.43 | 58.57 | 100 |
| 200-299 만원/250-350 만엔 | 56 | 83 | 37 | 176 | 125 | 122 | 247 |
| | 31.82 | 47.16 | 21.02 | 100 | 50.61 | 49.39 | 100 |
| 300-399 만원/350-650 만엔 | 19 | 51 | 17 | 87 | 197 | 179 | 376 |
| | 21.84 | 58.62 | 19.54 | 100 | 52.39 | 47.61 | 100 |
| 400-499 만원/650 만엔 이상 | 10 | 19 | 9 | 38 | 90 | 59 | 149 |
| | 26.32 | 50 | 23.68 | 100 | 60.4 | 39.6 | 100 |
| 500 만원 이상/일본 무응답 | 21 | 31 | 13 | 65 | 121 | 162 | 283 |
| | 32.21 | 47.69 | 20 | 100 | 42.76 | 57.24 | 100 |
| 한국무응답 | 255 | 228 | 121 | 604 | | | |
| | 42.22 | 37.75 | 20.23 | 100 | | | |

성별별: 한국과 일본 사회에서 성별에 따라 자녀 성선택은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국 남자는 기대와 달리 아들 선호보다 딸 선호는 조금 더 강한 것으로 보이며 한국 여자는 아들선호보다 딸선호가 훨씬 강하게 나타났다. 일본 남자는 아들 선호의 비율이 62.33% 인데 비하여 딸 선호의 비율이

겨우 37.77%에 불과하다. 일본 남자와 달리 일본 여자의 자녀성선호에 관한 태도는 한국 여자와 비슷하게 나타났다. 아들 선호의 비율이 28.35%인데 비하여 딸 선호의 비율이 71.65%이다. 아들보다 딸을 더 강하게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본사회에서 남자와 여자는 아들선호에 대하여 정 반대 태도를 보인다.

한국사회 및 일본사회에서 성별별로 자녀 성선호에 대하여 매우 다른 모습을 보여준다. <표 6>에서 나타나는 분포는 기존 연구(Chung and Das Gupta, 2007)에서 주장하는 한국의 아들 선호가 약화하였다는 결론을 다시 검증하지만, 한국에 관한 기존연구(은기수, 2013)에서 한국은 여전히 남아선호가 강하다는 분석결과와 약간 차이가 있으나 일본에 나타난 결과에 관한 기존연구 결과(Kana Fuse, 2008)와 일치한다.

소득별 자녀 성선호 분포를 살펴보면 크게 세 가지 특징이 있다. 첫째 한국하고 일본 사회에서 찾을 수 있는 공통점이 저소득집단(한국 월평균 소득: 100 만원 이하; 일본 연평균 소득: 0-100 만엔)은 아들 선호 및 딸 선호는 극적으로 대비될 정도로 차이가 뚜렷한 것으로 보인다. 저소득집단에는 일본은 아들보다 딸을 더 강하게 선호한다. 한편 한국은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한다.

둘째 일본 사회에서 소득수준에 따라 자녀 성선택에 대한 태도가 많이 다르다. 딸 선호국가로 알려진 일본사회에는 기대와 달리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 아들 선호가 점점 증가하는 반면 딸선택은 계속 감소하는 것으로 보인다. 650 만엔이상의 소득집단은 아들선택의 비율이 60.4%이고 딸 선택의 비율은 겨우 39.6 에 불과하다. 셋째 한국 사회에서 고소득집단은 아들 선호, 딸 선호보다 무선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적 통계를 통해 분석한 결과 성별별 및 소득별에 따라 한국 및 일본 양국사회에는 자녀 성선택에 대한 태도에 차이가 있다. 과연 연령 및 소득이 자녀성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대하여 회귀분석을 통하여 다시 검증하도록 한다.

제 3 절 회귀분석 결과논의

<표 7>

| 일본 | 아들/딸 N=2134 | 아들/딸 N=2134 | 아들/딸 N=2134 | 아들/딸 N=2134 |
|---------------------------|----------------|----------------|----------------|----------------|
| 성별(여성기준) | | | | |
| 남성 | 1.427*** | | 1.475*** | 1.463*** |
| 연소득(100 만엔이하기준) | | | | |
| 100-250 만엔 | | 0.304* | -0.056 | -0.0831 |
| 250-350 만엔 | | 0.674*** | -0.00338 | -0.0492 |
| 350-650 만엔 | | 0.746*** | -0.21 | -0.193 |
| 650 만엔이상 | | 1.072*** | -0.00053 | 0.14 |
| 모름/무응답 | | 0.358* | -0.0618 | -0.029 |
| 연령(40 대기준) | | | | |
| 20 대 | | | | 0.383 |
| 30 대 | | | | 0.294 |
| 50 대 | | | | -0.232 |
| 60 대+ | | | | -0.00237 |
| 학력(고등학교 졸업기준) | | | | |
| 중학교 졸업이하 | | | | 0.188 |
| 단기대학,전문 | | | | -0.129 |
| 대학교이상 | | | | -0.0564 |
| 도시규모(대도시기준) | | | | |
| 작은 도시 | | | | -0.219 |
| 농촌 | | | | -0.251 |
| 혼인상태(이혼, 사별, 별거기준) | | | | |
| 기혼,동거 | | | | -0.0289 |
| 미혼 | | | | 0.0574 |
| 종교(종교기타 기준) | | | | |
| 불교 | | | | 0.363** |
| 기독교 | | | | 0.126 |
| Constant | -0.927*** | 0.650*** | 0.892*** | 0.843*** |

주: *: P<0.1, **:P<.05, ***:P<.01.

<표 8>

| 한국 | 아들/딸 N=1354 | 아들/딸 N=1354 | 아들/딸 N=1354 | 아들/딸 N=1354 |
|-------------------------------|----------------|----------------|----------------|----------------|
| 성별(여성기준) | | | | |
| 남성 | 0.223 | | 0.486*** | 0.498** |
| 월평균소득 (100 만원이하기준) | | | | |
| 100-199 만원 | | 0.502* | -0.577* | -0.0091 |
| 200-299 만원 | | -0.409 | -0.608* | 0.217 |
| 300-399 만원 | | 1.003** | 1.232*** | -0.542 |
| 400-499 만원 | | -0.658 | -0.952* | -0.12 |
| 500 만원이상 | | -0.405 | -0.709* | -0.0148 |
| 모름/무응답 | | 0.0959 | 0.0594 | 0.282 |
| 연령(40 대기준) | | | | |
| 20 대 | | | | 0.56 |
| 30 대 | | | | 0.101 |
| 50 대 | | | | -0.0186 |
| 60 대+ | | | | 0.723** |
| 학력 (고등학교졸업기준) | | | | |
| 중학교 졸업이하 | | | | 0.490* |
| 단기대학,전문 | | | | -0.0925 |
| 대학교이상 | | | | 0.282 |
| 도시규모 (대도시기준) | | | | |
| 작은 도시 | | | | 0.162 |
| 농촌 | | | | 0.547** |
| 혼인상태 (이혼, 사별기준) | | | | |
| 기혼,동거 | | | | 0.109 |
| 미혼 | | | | -0.479 |
| 종교(종교없음 기준) | | | | |
| 불교 | | | | 0.633*** |
| 기독교 | | | | 0.23 |
| 천주교 | | | | 0.348 |
| 기타 | | | | 1.966* |
| Constant | 0.263** | 0.016 | -0.0975 | 1.580*** |

주: *: P<0.1, **:P<.05, ***:P<.01.

자녀성선호의 성별 차이

자녀성선호를 종속변수로 선택하여 아래와 같은 회귀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성별을 독립변수로 정한 모델 1은 여성을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일본 남성의 계수 수준이 0.01 표준 하에 현저히 나타나고 일본사회에서 성별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일본 Model1). 한국사회에서 성별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으나 한국남성의 계수 수준이 현저히 나타나지 않는다(한국 Model1).

소득변수 및 성별변수를 독립변수로 된 모델 3은 성별변수 및 소득변수 서로 상호 작용해서 일본도 한국도 계수 수준이 0.01 표준하에 현저히 나타나며 성별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성별별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었다(일본 Model3)(한국 Model3).

여러변수를 통제해서 성별로 보면 한국도 일본도 계수 수준이 0.01 표준하에 유의미한 차이가 있고 성별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한국 Model4)(일본 Model4). 확률을 보면 일본의 경우 남자는 여자에 비해 331%, 즉 4 배이상으로 아들을 더 선호한다. 한국에서도 남자는 여자에 비해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이 64% 즉 1.64 배이상 높다.

앞서 기술적인 분석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일본사회에서 남자는 아들을 더 선호하고 여자는 딸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다고 밝혔는데 여러 변수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일본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아들을 선호하는 것이다. 이상의 성별에 따른 자녀 성선호 분석 결과는 기술적 분석과 일치하는 놀라운 결과를 보여준다. 딸 선호로 알려진 일본사회에는 응답자의 성별에 따라 차이가 두드러지며 성별에 따른 자녀 성선호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첫 번째 분석대상인 한국, 일본에서 성별에 따라서 자녀성선호에 대하여 상이한 태도가 나타나고 있다. 즉 딸을 기준으로 했을 때 남자는 여자에 비해서 아들을 선호한다. 두번째 한국사회에서 성별에 따른 자녀 성선호의 차이가 일본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알 수 있다.

자녀성선호의 소득 차이

소득을 독립변수로 정한 모델 2에서 한국, 일본은 각각 딸을 기준으로, 100 만원이하, 100 만엔이하를 기준으로 회귀분석을 실시했다.

소득변수만 통제하는 일본사회에는 연 소득 100-250 만엔 집단의 계수 수준이 0.1 표준 하에 현저히 나타나며 소득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확률을 보면 100-250 만엔 집단은 100 만엔 이하 집단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은 35%, 즉 1.35 배이상 높다. (일본 Model2)

연 소득 250-350 만엔 집단의 계수 수준의 0.01 표준 하에 현저히 나타나며 소득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확률을 보면 250-350 만엔 집단은 100 만엔이하 집단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은 96%, 즉 1.96 배이상 높다(일본 Model2).

연 소득 350-650 만엔 집단의 계수 수준의 0.01 표준 하에 현저히 나타나며 소득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확률을 보면 350-650 만엔 집단은 100 만엔이하 집단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은 110% 즉 2.1 배이상 높다(일본 Model2).

연 소득 650 만엔이상 집단의 계수 수준의 0.01 표준하에 현저히 나타나며 소득 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확률을 보면 650 만엔 집단은 100 만엔이하 집단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 192%, 즉 2.92 배이상 높다(일본 Model2).

일본사회에서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아들 선호가 강해진다는 결과는 기술적 분석에 나온 결과가 일치한다(일본 Model2).

소득변수만 통제하여 한국사회에서 소득에 따라 일본사회와 상이한 결과가 나타났다.

월평균 소득 100-199 만원집단 및 300-399 만원집단은 유의하게 나타나며 소득효과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 월평균 소득 100-199 만원집단은 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이 65%, 즉 1.65 배 이상 높다(한국 Model2).

월평균 소득 300-399 만원집단은 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이 172% 즉 2.72 배이다 상 높다 (한국 Model2).

성별 변수를 통제한 후에 일본의 경우에는 허위 상호작용으로 인하여 소득은 자녀 성선택에 대해서 무의미하게 나타났으며 기술적 분석에 나온 결과 일치하지 않았다(일본 Model3).

성별 변수를 통제한 후에 한국의 경우에는 월평균 소득 100-199 만원집단, 200-299 만원집단, 300-399 만원집단, 400-499 만원집단, 500 만원이상집단 모두 다 유의하게 나타났다. 300-399 만원소득집단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반면 100-199 만원, 200-299 만원, 400-499 만원, 500 만원이상 소득집단은 모두 음의 상관관계가 있다.

그중에 300-399 만원집단은 계수 수준의 0.01 표준 하에 현저히 나타났다. 확률을 보면 300-399 만원소득 집단은 이 집단에서 딸보다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이 242%, 즉 3.42 배 이상 높다. (한국 Model3)

성별, 연령, 학력, 도시규모, 혼인상태, 종교 변수를 통제한 후에 소득의 효과를 다항로지분분석을 통해 분석해 보면 기술적 분석에서와 달리 유의미하지 않다(한국 Model4)(일본 Model4).

소득이 자녀 성선택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수준에서 차이와는 달리 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다른 한편 무엇보다 일본의 경우 학력, 도시규모에 따른 자녀 성선택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다는 점이 인상적이다. 이와 더불어 한국의 경우에는 교육수준은 중학교 및 중학교 이하, 나이는 60 대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아들 선호가 강한 경향을 보여준다는 점도 유의미한 발견이다. 한국 및 일본사회에서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종교가 없는 사람들에 비해 아들을 더 선호한다는 발견도 있다.

제 4 장 결론

제 1 절 요약 및 결론

이 연구는 2010 년에 시행한 일본사회종합조사 자료와 2012 년에 실시한 한국사회종합자료를 활용하여 자녀 성선호를 횡단적으로 비교한 연구이다. 비록 두 자료가 2 년의 시간차를 두고 있으나, 비슷한 시기의 자녀 성선호를 분석한 연구라는 점에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 연구는 한국 및 일본사회의 자녀 성선호를 이해하기 위한 작업으로 다음과 같은 연구목적を 지니고 있다.

첫째 자녀 선성호에 대한 기존 비교연구가 많지 않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한국과 일본 두 나라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기존에 있는 자녀 성선호연구를 보완하고 발전시켜 이 연구분야에 기여하고자 한다.

둘째 한국 및 일본 사회에 나타난 다양한 자녀 성선호에 관한 태도를 분석하고 공통점 및 차이점을 밝히며 개인 수준에서 어떤 집단이 아들을 선호하는지 밝히는 것도 본 논문의 이차적인 목적이다.

이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첫째 이 연구의 분석대상인 한국 및 일본 사회에서 자녀 성선호에 관한 태도는 사회적인 수준에서는 아들 선호보다 딸 선호의 모습이 발견되었다.

과거 강한 아들 선호국가로 알려져 있는 한국에서 딸 선호가 더 강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 일본은 기존에 연구되었던 바와 같이 이 연구에서 이용한 자료분석을 통한 결과에서도 딸 선호 사회로 나타났다.

둘째 성 선호 특성과 관계없이 일본, 한국 사회에서 모두 남자들은 여자에 비해 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았다. 개인적인 차원에는 일본도 한국도 성별에 따라 자녀 성선호가 극명하게 차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중에 딸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일본 남자들이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이 331% 즉 4 배이고 한국 남자들이 여자에 비해 아들을 선호하는 확률이 64% 즉 1.64 배이다. 즉 성별별에 따라서 자녀 성선호에 관한 태도는 일본이 한국보다 더 차이성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가설 1 를 검증하였다.

셋째, 소득에 따라서 자녀 성선호에 미치는 영향은 성별 수준에서 차이와는 달리 일본도 한국도 큰 유의미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이를 통하여 가설 2 는 옳지 않은 가설임을 알 수 있다.

넷째 개인의 수준에서는 한국에서 교육수준은 중학교, 나이는 60 대 이상, 농촌 지역에 거주하며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딸보다 아들을 더 선호한다. 일본에는 불교를 믿는 사람은 아들을 선호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아들을

선호하는 사람은 딸을 선호하는 사람에 비하여 권위적이고 위계서열적이며 남성 중심적인 가족가치를 가질 확률이 높다(은기수, 2013).

사회가 변화하고 발전할 수 록 한국도 일본도 가족형태, 가족에 대한 가치관이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다. 두사회가 사회적인 차원에서 남아선호로부터 여아선호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은 과거 사회와 달리 더이상 아들을 낳는 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지 않음을 보여준다. 즉 사회적인 차원에서 딸 선호사회는 딸의 가치가 아들의 가치보다 더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제 2 절 토론 및 한계

자녀 성선택에 관한 여러 연구를 진행해 왔지만 본 논문에서 이용하는 한국종합사회조사 및 일본종합사회조사에는 자녀 성선택에 관한 질문은 자식을 하나만 낳을 수 있는 가정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자료를 분석하여 아이 한 명만 낳을 수 있다고 가정하면 한국 및 일본사회에는 여아선택이 나타났다. 그러나 일본사회에는 Japanese National Fertility Survey(JNFS)조사에 따라 자녀 두 명을 원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며 자녀 두명의 성별조합은 아들 하나 딸 하나는 가장 많다. 설문지에서 이루어진 질문 문항은 자녀 한 명만 낳는 가정에서 설정한다. 이로 인하여 “자녀 두 명 혹은 여러 명을 낳고 싶은 경우에 남녀조합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한 것은 본 논문에서 검증하지 못했다. 향후에 자녀 성선택에 관한 연구는 좀 더 과학적으로 측정하기 위해서 여러 조사를 동시에 진행하여 좀 더 과학적으로 분석할 것이다. 일본 자료에서 자녀 성선택에 대한 질문에서 무선택란 문항이 빠져있기 때문에 한국과 비교하면 딸을 기준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단 하나만 측정할 수 있다. 만약 무선택란 문항이 들어간다면 딸을 기준으로 아들을 원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딸을 기준으로 무선택을 원하는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혹은 무선택을 기준으로 아들을 선호하는 사람이 어떤사람인지 등 여러 결과를 측정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독립변수 소득에서 일본의 경우에는 무응답하는 비율이 13.26%이며 한국의 경우에는 미적용하는 비율은 44.61%이다. 이는 통계결과의 정확성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

그 외에 자녀 성선택에 관한 연구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비교할 만한 나라를 선택하여 비교하는 연구는 아직 많이 존재하지 않는다. 동아시아에 자녀성선택에 관한 연구에서 (은기수, 2013)는 동아시아가족사회조사 EASS 2006 및 태국, 베트남 가족 조사 자료를 이용하여 동아시아 각국에 대하여 자녀 성선택을 분석하여 비교사회학과 자녀 성선택에 관한연구에 아주 큰 기여를 하였다. 본 논문은 (은기수 2013)의 논문을 바탕으로 이미 공개된 자료에 대하여 동아시아 국가 중 한국 및 일본을 선택하였다. 앞으로 자녀 성선택에 관한 비교연구의 발전을 위해 한국 일본뿐 만 아니라 다른 여러 국가들의 자료를 연구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비교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길 바란다.

변화하는 사회 속에서 한국인, 일본인들이 자녀성선택에 대한 태도를 측정한다는 목적으로 연구된 본 논문은 다음과 같은 한계를 지닌다.

첫째 정확한 비교분석을 하기 위하여 데이터를 표준화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양국 데이터를 표준화하여 분석하지 않았기에 수치 자체의 크기를

비교할 수 없었다. 더욱 자세한 비교분석을 위해 데이터의 표준화는 꼭 선행되어야 할 작업일 것이다.

둘째 본 논문은 횡단면(cross-sectional)데이터를 이용해서 분석했다. 그러나 이 데이터만을 가지고서는 인과관계를 면밀히 분석하는데 한계가 있다. 본 논문에서 성별 및 소득 두 독립변수를 중심으로 자녀성선택에 주는 영향을 가정한 후 분석을 실시했으나 인과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밝히기 위하여 향후 패널(panel)데이터를 이용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는 비교연구로서 양국의 비교에 중점을 두었기 때문에 심도있는 분석이라기보다는 표면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최대한 드러내려고 하였다. 이번 연구결과를 토대로 향후 자세한 분석이 수행될 것을 기대한다.

참고문헌

1 차자료

국문

한국종합사회조사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KGSS)

영문

일본종합사회조사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JGSS)

단행본

국문

민인식, 최필선. 2012. 『STATA 기초적 이해와 활용』 : 지힐미디어.

이창한, 이완희, 황성현, 이강훈, 김상원. 2014. 『STATA 를 활용한
사회과학 자료분석』 : 피앤씨미디어.

민이식, 최필선. 2012. 『기초통계와 회귀분석』 : 지필미디어.

이제열 외. 2005. 『사회과학의 고급계량분석-원리와 실제』 :
서울대학교출판부.

문옥표, 박병호, 김광익, 은기수, 이충구, 2004. 『조선양반의 생활세계』 : 백산성당.

권태환, 권태환, 전광희, 은기수, 김두섭, 김태현. 1997. 『한국 출산력 변천의 이해』 : 일신사.

영문

Jeff Kingston.2004. <<Japan's Quiet Transformation>>.Routledge.

Joy Hendry.2002. <<Understanding Japanese Society>>. Routledge.

Sechiyama Kaku.2013. <<Patricarchy in East Asia>>. Brill.

Tanaka Sigeto.2013. <<A Quantitative Picture of Contemporary Japanese Famailies>>. Tohoku University Press, Sendai.

Ronald Inglehart.1997. <<Modernization and Postmodernization: Cultural, Economic, and Political Change in 43 Societies>>.Princeton University Press.

James R. Kluegel, Eliot R. Smith.1986. <<Beliefs About Inequality: Americans' Views of What Is and What Ought to Be>>. Aldine Transaction.

논문

국문

오노 유미코. 2015. “한국과 일본의 주관적 행복감 비교연구.”서울대학교 석사논문.

진교훈. 1997. “한국의 남아선호사상”. 한국의료법학회지 3: 5-10.

은기수. 2001. “결혼연령 및 결혼 코호트와 첫 출산간격의 관계: 최근의 낮은 출산력 수준에 미치는 함의를 중심으로.” 한국사회학 35(6): 106-113.

은기수. 2005. “한국의 가족가치에 대한 국제비교연구.” 한국인구학 28(1): 107-132.

은기수. 2009. “아시아적 가족가치”의 동아시아 사회 비교연구.” 한국사회학회 국제사회학대회: 827-848.

은기수. 2013. “동아시아 사회의 자녀 성선호.” 가족과 문화 25(4): 1-33.

이성용. 1996. “행위모형에 의한 26 개 비서구국가들의 성선호 유형.” 한국인구학 19(2): 19-45.

이성용. 2003. “남아선호와 출산력간의 관계.” 한국인구학 26(1): 31-57.

이성용. 2007. “성 선호와 자녀의 가치의 인과성에 대한 이론화 작업.”
사회이론 17: 123-167.

나은영, 차유리. 2010. “한국인의 가치관 변화 추이: 1979 년, 1998 년, 및
2010 년의 조사 결과 비교.” 한국심리학회지 24(4): 63-93.

장경섭. 2001. “가족이념의 우발적 다원성: 압축적 근대성과 한국가족.”
정신문화연구 24(2): 161-202.

영문

Lee Sung Yong. 1995. “The effect of the value of children on sex
preference: a comparative study of Korea and Jamaica.” University of
Wiscosin-Madison, Doctor’s thesis.

Chung, Woojin and Monica Das Gupta.2007. The decline of son
preference in South Korea: the roles of development and public
Policy.”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3(4):757-783.

Tin-chi Lin.2009. “The decline of son preference and rise of gender
indifference in Taiwan since 1990.” Demographic Research 20(16):
377-402.

Arnold F, Kuo E.1986. "Sex preference, fertility and family planning in Chin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12 (2): 221-246.

Park C, Cho N. 1995. "Consequences of son preference in a low-fertility society: imbalance of the sex ratio at birth in Kore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21 (1):59-84.

Williamson NE. 1976. *Sons or daughters: A cross-cultural survey of parental preferences*. Beverly Hills, Sage Publications.

Ochiai Emiko.2011. "Unsustainable Societies: The failure of familiasm in east asia's compressed modernity." *Historical Social Research* 36(2):219-245.

Hilke Brockmann.2001. "Girls Preferred? Changing Patterns of Sex Preferences in the Two German States." *European Sociological Review* 17(2): 189-202.

Tai Hwan Kwon, Hae Young Lee.1976. "Preference for number and sex of children in a Korean town." *Bulletin of the Population and Development Studies Center* 5: 1-13

Kelly H.Chong. 2006. "Negotiating patriarchy South Korean evangelical women and the politics of gender." *Gender&Society* 20(6): 697-724.

Chang Kyung-sup. 1997. "Modernity through the family: familial foundations of Korean society." *International Review of Sociology* 7(1): 51-63.

Chang Kyung-sup& Min-Young, S. 2010. "The stranded individualizer under compressed modernity: South Korean women in individualization without individualism." *The British Journal of Sociology* 61(3): 539-564.

Christophe Z. Gulmoto.2009. "The sex ration transition in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35(3): 519-549.

Ronald R. Rindfuss, S. Philip Morgan. 1983. "Marriage, sex, and the first birth Interval: The quiet revolution in Asia." *Population and Development Review* 9(2): 259-278.

Fuse, Kana. 2008. "Gender preferences for children: a multi-country study." Ohio State University Doctor's thesis.

Fuse, Kana. 2013. "Daughter preference in Japan: a shift in Gender Role attitudes?" Demographic Research 28(36): 1021-1052.

Arnold, Fred and Eddie C.Y.Kuo.1984. "The value of daughters and sons: a Comparative Study of the Gender Preferences of parents." East-West Population Institute ReprintNo.177, East-West Center.

Eleanor Jawon Choi, Jisso Hwang.2015. "Child gender and parental inputs: No more son preference in Korea?" American Economic Review 105(5): 638-643.

일문

小島宏. 2003.“子どもに関する意識の規定要因－人口問題意識調査（1990/1995）と JGSS-2000/2001 の比較分析.” JGSS 研究論文集 2:1-24.

坂井 博通. 1992. "近年における子どもの性別選好の動向とその社会経済的差異."社会心理学研究 7(2): 75-84.

坂井 博通. 1989. "現代日本人の性別選好について: 2 子の性別パターンと 3 子出生の関係から."社会心理学研究 4(2): 117-125.

守泉理恵.2008.“日本における子どもの性別選好：その推移と出生意欲との
関連.” 人口問題研究 64(1):1-20.

〈Abstract〉

A Study of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in a Transforming Society: A Comparison of Korea and Japan

Banglin Ai

Seoul National University Graduate School of International Studies

Korean Studies Major, Department of International Studies

East Asian societies display marked diversity with respect to child gender preference, ranging from a strong preference for sons, to no gender preference whatsoever, to the preference for daughters. The current study utilizes data compiled in the 2012 Korean General Social Survey and the 2010 Japanese General Social Survey to investigate the character of the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in each of these countries, analyzing the elements of discrimination inherent to such preferences.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follow.

First, Korean and Japanese society each display a preference for daughters. Therein, Korea espouses a stronger preference for

daughters, a striking fact considering its decided preference for sons in the past. Meanwhile, the results with respect to Japan are consistent with existing research.

Second, child gender preferences differ greatly between men and women. In both Korean and Japanese society, men tend to prefer sons more than women do. In Japan, the number of men preferring sons to daughters is roughly four times the amount of women. In Korea, the rate of men preferring sons is almost two times that of women. Thus, the difference in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among men and women is more pronounced in Japan.

Third, the influence of income on gender preference for children is negligible in both countries.

Fourth, with respect to various individual characteristics, in Korea those who possess a level of education no higher than middle school, those over the age of sixty, those who reside in rural areas, and those whose religion is Buddhism tend to prefer sons to daughters. On the other hand, in Japan those of the Buddhist faith also tend to prefer sons.

Keywords: Korea, Japan, child gender preference, son preference,
daughter preference

Student Number: 2014-24257